

## 11/1(화) 욱기 묵상 46

욱기 36:1-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기 36-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변론의 첫 부분을 묵상합니다.

### 자기 확신

엘리후는 비록 욱의 세 친구들보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는 그가 욱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대화에 끼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욱에게 변론을 시작한 이유는 욱이 자신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또 세 친구들이 그런 욱의 주장을 꺾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욱 32: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살펴보면 몇가지 면에서 세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욱의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욱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면 결국 욱보다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쪽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의 이유보다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욱은 자신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욱은 최소한 그의 잘못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주장도 결국 세친구들과 같이 욱의 잘못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엘리후의 주장(5-15절)

엘리후는 그의 마지막 변론에서도 위에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5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 그리고 지혜입니다. 다음, 7-1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언급합니다(7-10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엘리후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감찰과 함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의인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11-12절에서 고난 당한 의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11-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사람이 고난의 교훈을 깨닫고 순종하면 형통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은 아무런 깨달음 없이 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엘리후는 13-15절에서 경건치 않은 자의 예와 함께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13-15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엘리후가 말하는 경건치 않은 자는 완고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욱으로 하여금 그의 고집을 굽히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지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엘리후는 비록 친구들보다는 좀 더 나은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은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죄하고 만 연결시키는 반면 엘리후는 의인의 고난도 교훈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엘리후의 경우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욥이 무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완고하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보다도 자신의 주장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엘리후가 더 완고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확신과 주장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을 수도 있다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유학을 나오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신 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개인 또는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 본 대가들은 엘리후와 같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가일 수록 다른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디즈에일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닌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이는 자기 주장과 신념 그리고 고집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말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잘못된 오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할로윈 이태원 사고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부상자들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브랜포드 2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OMS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